

# 1930년대 周作人の 文體 選擇과 그 動因\*

洪俊熒\*\*

---

◁ 목 차 ▷

- I. 머리말
  - II. 1930년대 周作人 散文 文體의 特徵
  - III. 담론 공간의 비판적 인식과 문체 선택
    - 1. '閉戶讀書'와 그 배경
    - 2. 周作人の 문체 선택과 문화적 이상
  - IV. '獨抒性靈'에서 '思想之美'로
    - 자기 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문체의 모색
  - V. 맺음말
- 

## I. 머리말

중국 현대 산문사를 이야기 할 때 魯迅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흔히 周作人을 꼽는다. '雜文'이란 문체를 현대 산문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으로 정착시킨 魯迅에 대해 周作人은 '美文'이라 불리는 小品文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현대 산문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1921년 6월《晨報副刊》에 발표한 〈美文〉은 중국 최초의 현대적 산문론으로서, 周作人은 그 후 자신의 선도적인 글쓰기 실천과 小品文 運動의 전개를 통해 소품문이 현대 중국의 문학 공간 속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지하는 하는 바와 같이 周作人の 초기 '美文論'은 서구의 서정적 에세이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 M3029)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연구교수

를, 그리고 소품문 운동은 明末의 小品文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 미문론의 제기를 통해 周作人은 중국 신문학에 처음으로 서구의 에세이와 같은 서정적인 純散文(예술산문)의 길을 개척했고, 이후 소품문 운동을 통해서도 명말 소품의 '獨抒性靈, 不拘格套' 전통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부활시킴으로써 당시의 공리적인 좌익문학에 대항할 수 있는 개성적이면서도 전통적 情趣와 美感를 겸비한 새로운 서정 산문의 방향을 마련했다.<sup>1)</sup> 〈故鄉的野菜〉, 〈北京的茶食〉, 〈烏篷船〉, 〈喝茶〉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작들은 그의 이러한 산문의식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글쓰기 차원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周作人은 문학사에서 중국 현대 예술 산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周作人이 자신의 글쓰기에 있어 전적으로 이러한 예술적 미문만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다. 1920년대 周作人이 전투적이고 사회비평적 성격을 띤 잡문 창작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하고 독특한 글쓰기 실천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sup> 이는 다른 작가들과 달리 周作人의 경우 글쓰기 실천에 있어 일반적인 '文學'의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주로 자신의 현실 인식과 문화적 입장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담론 방식을 추구했던 데 연유한다. 따라서 周作人의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글쓰기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쓰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글쓰기가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연관적이고 입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周作人의 글쓰기 문제와 관련해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930년대 周作人 글쓰기 실천의 변화이다. 周作人이 앞서 언급한 소품문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시기는 대략 1926년부터 1930년대 초중반까지

1) 1920년대 중후반 이후 小品文 기획에 있어 周作人의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당시 文學場 속에서 가졌던 의미망에 대해서는 拙稿 〈文學想象與現代散文話語的建立(1925-1935)(上)〉의 116-124쪽 참조.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4년 1期, 中國現代文學研究會.)

2) 舒蕪, 《周作人的是非功過(增訂本)》,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0, 3-87쪽; 劉緒源, 《解讀周作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4, 64-134쪽 참조.

이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정작 周作人 자신의 글쓰기는 소품 문 운동이 전범으로 삼았던 明末 小品의 문체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명말 소품의 문체적 특징이 주로 직접적인 抒情을 통해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작가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에 있는 데 반해, 周作人の 글들은 오히려 점차 知的 요소의 비중을 강화하면서 직접적인 서정의 표출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지적 요소의 강화는 주로 자신의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얻은 다양한 지식을 글속에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30년대에 들어서 다른 책들, 특히 古書의 抄錄과 직접 인용을 중심적 구성요소로 삼는 '抄錄體'라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고는 1930년대 周作人이 추구한 새로운 글쓰기 양식인 '抄錄體' 산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이러한 글쓰기 양식의 변화를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진행된 周作人の 세계에 대한 새로운 담론 방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담론방식을 모색하게 된 사회문화적 동인을 1930년대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재 후기 周作人の 산문에 관한 국내 학계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여 '抄錄體'로 대표되는 1930년대 周作人 산문 문체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중국 학계의 선행 연구를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 周作人이 '抄錄體'란 새로운 글쓰기 양식을 시도한 이유를 당시 지식인 담론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모색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周作人の 그러한 새로운 글쓰기의 노력이 당시의 담론 공간 속에서 차지했던 위치는 어떠한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1930년대 周作人 글쓰기의 득실과 의미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 II. 1930년대 周作人 散文 文體의 特徵

앞서 언급한 바처럼 1930년대 周作人の 글쓰기를 대표하는 것은 抄錄體이

다. '抄錄體'란 '文抄', '筆記體 散文' 혹은 '書話'라고도 불리는 것으로,<sup>3)</sup> 작가의 주관적인 서정이나 사상적 견해의 직접적 표명을 가능한 억제하고 대신 주로 다른 책이나 문헌들에 대한 단락 단위의 직접 인용과 짜깁기를 통해 글쓰기를 구성하는 문체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의 연원은 고대의 필기문학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周作人の 경우 특히 '廣證博引'을 특징으로 하는 清代 유학자들의 筆記文에서 영향받은 바 크다.<sup>4)</sup>

사실 周作人이 초록의 수법을 이때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초록과 인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의 雜文이나 서정 산문에서도 서구와 일본 문인들의 문학적, 사상적, 윤리적 견해를 소개하거나, 혹은 생활의 경험과 사물에 관련한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할 때 종종 초록이나 직접 인용의 기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抄錄 방식의 사용이 당시 전체 글의 구성에서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周作人の 글쓰기에서 초록의 비중이 부쩍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무렵이다. 이후 약 1.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1933년 후반에 이르면서부터 周作人은 자신의 글쓰기에서 본격적으로 초록체를 채용하기 시작했다.<sup>5)</sup> 1934년

- 3) '文抄'는 古書에서 큰 단락을 베껴 그대로 초록한다는 의미이다. 1930년대 錢玄同이 周作人에게 쓴 한 편지에서 당시 周作人の 文體를 '文抄'라 했고, 周作人 스스로도 여러 번 '文抄' 혹은 '文抄公'이라는 말로 자신의 당시 문체를 설명했었다. 다만 周作人은 때에 따라 이러한 글쓰기를 '讀書錄', '筆記' 때로는 심지어 더욱 광범위한 '隨筆'이란 용어 속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文抄는 주로 형식적 측면을 고려한 命名이고, 筆記는 그 형식의 전통적 연관성을, 書話는 주로 이러한 글쓰기가 책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짐을 고려한 命名이라 할 수 있다. 문체의 형식적 변화를 중시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文抄'라는 용어가 비교적 부합하나 文體를 지칭하는 한국어 고유명사로 어색한 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文抄體' 대신 '抄錄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周作人, 〈玄同記念〉, 《藥味集》, 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2002. 27쪽; 〈苦竹雜記·後記〉, 《苦竹雜記》, 河北教育出版社, 2002. 220쪽) (이하 周作人 작품 인용 시 모두 河北教育出版社 2002년판 《周作人文集》을 저본으로 하고 출판사 이름은 생략함)
- 4) 周作人の 후기 글쓰기와 清代 筆記의 관계에 대해선 필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談筆記〉, 〈老學庵筆記〉, 〈曝背余談〉(이상《秉燭談》)과 葛飛의 〈周作人與清儒筆記〉(《魯迅研究月刊》, 2003년 11期)를 참조할 것.
- 5) 周作人은 훗날 1940년에 이르러 창작 활동을 회고하며 크게 세 단계로 자신의 창작 활동 시기를 구분했다. 첫째는 乙巳年(1905)부터 民國 10年(1921)경 까지 주로 외국 작품의 번역에 힘쓴 시기이고, 둘째는 民國 11年(1922) 이후부터 주로 비평적 글쓰기를 한 시기, 셋째는 民國 21年(1932) 이후 주로 독서 필기를 쓴 시기인데 셋째 시기의 시작인 1932년은 본 논문이 초록체 산문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는 1933년과 대체로 일

산문집《夜讀抄》의 출판은 이러한 그의 글쓰기 실천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표지였다.<sup>6)</sup> 이때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周作人は 수많은 抄錄體 형식의 산문을 창작하였고, 훗날 이를 모아 출간한 산문집만도 《苦茶隨筆》, 《苦竹雜記》, 《書房一角》, 《藥堂雜文》 등 무려 15권에 이른다.

周作人 초록체 산문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다. 周作人の 후기 글쓰기에 있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7)</sup> 책은 이 시기 周作人の 글쓰기 대상이자 초록의 원천이며 동시에 그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 그리고 역사와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책을 매개로 한 周作人の 초록은 그 방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8)</sup>

하나는 주로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책의 본문 및 관련 문헌들을 초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부분 초록된 책의 이름을 작품의 표제로 삼는데 〈顏氏家訓〉, 〈文飯小品〉(이상《夜讀抄》), 〈廣陽雜記〉(《立春之前》), 〈拜還堂尺牘〉(《苦竹雜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顏氏家訓〉의 예를 들어보면, 이 작품에는 北齊 사대부의 자녀 교육법, 이별 할 때의 감정 표출, 喪祭 관련 미신과 자신의 사후 제사 문제, 그리고 王籍의 시 〈入若耶溪〉의 풍격 등 모두 10여 곳에 걸쳐 직접 초록된 부분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원작자인 顏之推의 〈顏氏家訓〉 본문과 이와 관련한 註釋本, 版本들의 評點 등을 초록한 것이다.<sup>9)</sup>

다른 하나는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놓고서 이와 관련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집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예로는 《苦竹雜記》에 실린 〈談油炸鬼〉를 들 수 있다. 일명 ‘油炸鬼’라고 불리는 중국식 파매기(‘麻花’)를 중심 화제로 삼고서 劉廷璣의 《在園雜誌》, 范寅의 《越諺·飲食門》, 朝鮮人

치한다. (《書房一角·原序》, 《書房一角》, 3쪽)

6) 止庵, 〈夜讀抄〉, 《苦雨齋識小》, 北京, 東方出版社, 2002, 7-73쪽; 黃開發, 〈小品散文的文體〉, 《人在旅途—周作人的思想和文體》,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04쪽; 劉緒源, 《解讀周作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4, 116-117쪽 참조.

7) 周作人, 〈夜讀抄·後記〉(1934): 「我所說的話常常是關於一種書的」(《夜讀抄》, 202쪽)

8) 黃開發, 《人在旅途—周作人的思想和文體》(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39-141쪽 참조.

9) 周作人, 〈顏氏家訓〉(1934), 《夜讀抄》, 107-112쪽.

權寧世의 《支那四聲字典》, 王思任의 《謔庵文飯小品·游滿井記》 등 다양한 문헌의 집록을 통해 '油炸鬼'의 연원, 지역간의 서로 다른 발음과 명칭, 그리고 이러한 서민적 음식을 즐길 때 느끼는 독특한 風趣와 情感 등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sup>10)</sup> 유명한 〈鬼的生長〉이란 작품 역시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글이다. 인간사의 投影으로서의 귀신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삶의 비애와 아픔 등을 반추하면서, 清代 紀昀의《如是我聞》, 宋代 邵伯溫의《見聞錄》, 清代 錢鶴岑의《望杏樓志痛編補》등에 실린 귀신의 성장에 관한 각종 기록들을 초록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초록체 글쓰기는 周作人의 일생을 통틀어 수량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작가 본인의 말에 의하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글쓰기이기도 하다.<sup>12)</sup>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sup>13)</sup> 周作人의 후기 초록체 산문에 대한 중국 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1920년대 周作人이 현대 산문과 소품문의 길을 개척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 데 반해 1930년대 이후의 초록체 글쓰기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퇴보라 여겼다. 세인들의 이러한 판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古書들을 베끼는 것에만 치중하고 글쓰기에 자신의 주관적 견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근대적 문학 관념에서 볼 때 이러한 '考證'이나 '抄錄' 등이 중심을 이루는 지적 취향의 글을 순수한 '문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sup>14)</sup> 셋째는 1930년대 중후반 이후 친일행적과 관련해 정

10) 周作人, 〈談油炸鬼〉(1935), 《苦竹雜記》, 79-83쪽.

11) 周作人, 〈鬼的生長〉(1934), 《夜讀抄》, 161-165쪽.

12) 周作人, 〈苦竹雜記·後記〉(1935), 《苦竹雜記》, 220-221쪽 참조.

13) 郁達夫는 1935년 발표한 〈中國新文學大系散文二集·導言〉에서 周作人의 후기 산문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풍격을 바꾸어서 고담함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고야하고도 군생을 추구하는 길로 접어들었다(近幾年來, 一變而爲枯澁蒼老, 爐火純青, 歸入古雅澹勁的一途)"며 긍정적 평가를 했고, 훗날 錢玄同도 周作人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학자풍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당신의 최근 몇 년간 글쓰기의 풍격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 소위 '文抄'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研究院式的作品固覺無意思, 但鄙意老兄近數年來之作風頗覺可愛, 卽所謂'文抄'是也)"라며 이 시기 周作人의 문체에 대해 높이 평가를 했다. (周作人, 〈玄同紀念〉, 《藥味集》, 27쪽 참조)

14) 대표적으로 林語堂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周作人 '抄書'에 대해 "後來專抄古書, 不發表意見"이라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林語堂, 〈記周氏兄弟〉, 《魯

치적인 관점으로부터 후기 周作人の 활동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sup>15)</sup>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기 시작한 '周作人熱'과 이에 따른 周作人에 대한 재평가는 周作人の 후기 글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먼저 周作人 후기 글쓰기의 성과를 주목한 사람은 舒蕪였다. 그는 1987년에 발표한 〈周作人後期散文의 審美世界〉란 글에서 周作人 후기 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周作人 소품문의 진정한 큰 성과는 오히려 그의 후기 글쓰기에 있다. 여기에는 심지어 그가 친일을 한 이후에 쓴 일부 작품도 포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周作人의 小品文의 真正大成就, 還是在他的後期, 甚至包括他附敵以後的部分作品, 這是今天應該冷靜地承認的.)<sup>16)</sup>

이는 周作人을 평가함에 있어 정치적 功過와 文學적 성과를 구분해야 하며, 예술적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후기 글쓰기의 성과가 잘 알려진 전기의 소품문을 능가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편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후기 산문의 대표적 문체인 抄錄體를 가리켜 중국문학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문체(前無古人亦未必有來者的 文體)'라 극찬하며 이러한 文體의 선택이 결코 혹자들이 얘기하듯 主見 없이 다른 책들을 베낀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되어진 周作人의 주체적인 글쓰기 실천임을 강조했다.<sup>17)</sup>

舒蕪의 주장을 계기로 대략 1990년대를 전후한 시점부터 錢理群, 劉緒源, 張中行, 黃開發 등을 중심으로 周作人の 초록체 산문에 대한 중국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졌다. 錢理群은 周作人の 초록체 글쓰기에 대한 舒蕪의 견

迅學刊》, 1981년 1기); 倪墨炎도 《中國的叛徒與隱士: 周作人》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他在這個時期的絕大部分作品, 都是連篇累牘地抄書, 抄古人洋人的書猶嫌不足, 還大段大段抄自己的書”, “連篇累牘地抄書, 還怎麼‘抒發性靈’呢? 還怎麼‘表現自己’呢? 當然也更談不上甚麼藝術性了. 周作人的散文創作就這樣進入了他的末路。」(劉緒源, 《解讀周作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4, 120쪽에서 재인용)

15) 周作人の 친일에 관해서는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中國現代文學》제20집,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2000) 참조.

16) 舒蕪, 〈周作人後期散文의 審美世界〉,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7년 1기, 5쪽.

17) 舒蕪, 《周作人的是非功過(增訂本)》,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0, 332쪽.

해에 기본적인 同感을 표하면서, 독서와 초록을 매개로 옛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의 고독과 절망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위안과 초월을 얻으려 했던 그의 주체적인 글쓰기 노력을 긍정하였다.<sup>18)</sup> 劉緒源과 張中行은 각각 周作人 초록체 글쓰기의 표현기법에 대한 미시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 초록체 글쓰기가 갖고 있는 미학적 내용과 문화적 의미의 풍부성을 밝혀 내었다. 최근에는 더욱 세부적인 측면으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해서 文體家로서의 周作人の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문체를 세밀하게 분류하고 정리한 黃開發의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 하다.<sup>19)</sup>

周作人 후기 산문과 관련한 이러한 최근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抄錄體로 대변되는 이 시기 周作人の 글쓰기를 단순히 협의의 문학 관념이나 정치적인 틀에서가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담론 방식의 구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周作人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글쓰기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음을 토로한 적이 있다.<sup>20)</sup> 錢理群의 말처럼 그에게 있어 讀書와 抄錄은 일종의 失語의 상태에서 ‘친구’를 찾는 것과 같은 至難한 과정으로서<sup>21)</sup> 현실과 역사 그리고 세계와 자아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한 심각하고 새로운 고민과 도전이었던 것이다.

### Ⅲ. 담론 공간의 비판적 인식과 문체 선택

#### 1. ‘閉戶讀書’와 그 배경

- 
- 18) 錢理群, 〈別一種文學—周作人散文論〉, 《精神的煉獄—中國現代文學從“五四”到抗戰的歷程》,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6, 87-95쪽.  
 19) 劉緒源, 《解讀周作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4, 64-134쪽; 張中行, 〈再談苦雨齋〉, 《負暄續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0; 黃開發, 《人在旅途—周作人的思想和文體》,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05-109, 137-148쪽.  
 20) 周作人, 〈苦竹雜記·後記〉(1935), 《苦竹雜記》, 220-221쪽 참조.  
 21) 錢理群, 〈別一種文學—周作人散文論〉, 《精神的煉獄—中國現代文學從“五四”到抗戰的歷程》,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6, 88쪽.

앞서 언급한 바처럼 周作人 초록체 산문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周作人 후기에 이르러 이렇게 책이라는 화두를 잡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그가 삶에 관한 방향전환으로의 ‘책 읽기(閉門讀書)’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아래의 글을 한 번 살펴보자.

‘지금 이때’는 유물론을 믿는 사람이건 혹은 귀신을 믿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에게 위험한 시기이다. 만약 당신이 관직에 있지 않다면 지금의 중국 상황에 대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당신의 마음속에 쌓여 마치 식도암 환자 배속에 있는 ‘종양’처럼 만약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그 종양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건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보기에는 이 같은 亂世에는 어쨌건 生命을 부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로 가장 좋기로는 아예 처음부터 피로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聖賢이 아니라면 관직에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없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는 피로운 일이 생길 때 푸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아편을 피운다든지 첩을 얻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온천에 간다든지 모두 그렇게 푸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떤 일은 돈이 들고 또 어떤 일은 힘을 들여야 하니 가난한 선비들이야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하루 종일을 생각해서 방법 하나를 생각했다. 바로 문을 닫고 들어앉아 책을 보는 것이다. (“此刻現在”，無論在相信唯物或是有鬼論者都是一個危險時期。除非你是在做官，你對於現時的中國一定會有好些不滿或是不平。這些不滿和不平積在你的心理，正如噎隔患者肚里的“痞塊”一樣，你如沒有法子把他除掉，總有一天會斷送你的性命，那麼，有甚麼法子可以除掉這個痞塊呢？我可以答說，沒有好法子。(...)那麼怎麼辦好呢？我看，苟全性命於亂世是第一要緊，所以最好是從頭就不煩悶，不過這如不是聖賢，只有做官的才能够，如上文所述，所以平常下級人民是不能仿效的。其次是有了煩悶去用方法消遣。抽大烟，討姨太太，賭錢，住溫泉場等，都是一種消遣法，但是有些很要用錢，有些很要用力，寒士沒有力量去做。我想了一天才算想到了一個方法，這就是“閉戶讀書”。)22)

위의 글은 1929년 周作人이 발표한 〈閉戶讀書論〉중의 한 부분이다. 당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인으로서의 심경 그리고 앞으로 현실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책읽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1930년대 이후 周作人의 사상과 글쓰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

22) 周作人, 〈閉戶讀書論〉(1928), 《永明集》, 113-114쪽.

를 갖는 글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周作人의 이러한 선택의 밑바탕에 현실의 지식인 담론에 대한 허망함과 무력감이 깊게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자탄의 말에서 드러나듯 5·4 이후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고 발언하였지만, 그러한 참여가 결국 현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즉 “문을 닫고 책을 본다(閉戶讀書)”라는 것은 그 동안의 그러한 현실 참여 방식에 대한 환멸과 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극복과 모색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써 그 자체에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周作人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당시 사회 상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이후 더욱 강화된 국민당 정권의 폭압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좌익운동의 확산은 이러한 그의 선택에 중요한 현실적 배경을 이루었다. 언론과 출판의 탄압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더 한층 억압되었고, 좌익 작가들이 혁명문학의 가치를 걸고 ‘민중’이란 이름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시하였지만 周作人이 보기에는 이 또한 중국의 사회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그들만의 담론일 뿐이었다.

최근 중국에서 ‘問題’나 ‘主義’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낭만적이다. 그들은 분홍색 꿈만을 꾸며 휘장의 바깥에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어 혁명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면이다. (...) 그들은 한껏 다가올 밝은 미래만 떠올려댄다. 농민이 모두 각성하면 내일이 곧 세계 대혁명의 날이라구! 반면에 농민의 삶 속에 얼마나 뭉매하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자산계급의 저주가 되는 것이었다.(中國近來講主義與問題的人都不免太浪漫一點，他們做着粉紅色的夢，硬不肯承認說帳子外有黑暗。譬如談革命文學的朋友便最怕的是人生的黑暗，(...)他們盡讓着光明到來了，農民都覺醒了，明天便是世界大革命！至於農民實際生活是怎樣的蒙昧，卑劣，自私，那是決不准說，說了即是有產階級的詛咒。)<sup>23)</sup>

23) 周作人, 〈婦女問題與東方文明等〉(1928), 《永明集》, 98쪽.

周作人이 특히 못마땅해했던 것은 그러한 소위 혁명적 지식인들의 자국 역사에 대한 無知였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대책 없는 空言을 남발하는 데 자국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판단은 중국역사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직관적 관찰로부터 얻은 순환론적 역사 인식에 기인한다.<sup>24)</sup> 그는 1920년대 중반에 발표한 한 편의 잡문에서 당시 중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모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는 자신의 느낌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는 “연기자와 관중, 복장만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일은 하나도 없다며 자신이 직접 참여한 5·4운동도 漢代의 黨爭이나 明代의 東林黨사건의 새로운 부활에 다름이 아닌 것으로서, 만약 崇弘 시기의 극을 보고 싶으면 배우들을 부를 필요도 없이 당대 사회 속에서 그에 걸 맞는 배역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sup>25)</sup> 즉 현실은 좌익작가들이 주장하듯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희망적이지만은 않으며, “이미 있었던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며 이미 행해졌던 일도 반드시 다시 행해”지는 것으로<sup>26)</sup>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不學之人)이 아무런 근거 없이 空言을 남발해 현실을 미화하거나 미래에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僞善이나 欺瞞이라는 것이다.<sup>27)</sup>

24) 周作人, 〈孔德學校紀念日的眞話〉(1934): 「中國的歷史是循環的, 思想也難逃此例。」(《苦竹雜記》, 213쪽)

25) 周作人, 〈歷史〉: 「天下最殘酷的學問是歷史, 他能揭去我們眼上的鱗, 雖然也使我們希望千百年後的將來會有進步, 但同時將千百年前的黑影投在現在上面, 使人對於死魂之力不住地感到威嚇, 我讀了中國歷史, 對於中國民族和我自己失去了九成以上的信仰與希望。」: 「世上如沒有遺魂奪舍的事, 我想投胎總是眞的, 假如有人要演崇文時代的戲, 不必請戲子去扮, 許多脚色都可以從社會里去請來, 叫他們自己演。」(錢理群, 《周作人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0년, 346쪽에서 재인용.)

26) 周作人, 〈偉大的捕風〉(1929), 《看雲集》, 49쪽.

27) 周作人, 〈閉戶讀書論〉(1928): 「淺學者流妄生分別, 或二十世紀, 或以北伐成功, 或以農軍起事劃分時期, 以爲從此是另一世界, 將大有改變, 與以前絕對不同, 彷彿是舊人霎時死絕, 新人自天落下, 自地涌出, 或從空桑中跳出來, 完全是兩種生物的樣子; 此正是不學之過也。」(《永明集》, 115쪽)

## 2. 周作人の 문체 선택과 문화적 이상

이 시기 周作人の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은 바로 이러한 당대 지식인 담론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당시 지식인 담론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의 내재적 근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우선 첫째는 지식인의 무지와 이에 따른 냉정한 이성정신의 결여이다. 周作人は 특히 중국 지식인 글쓰기의 가장 큰 병폐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不知而爲知)'이라 여겼다.

중국의 성현들이 일찍이 中庸의 道를 제창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된다. 아마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한다. 文人和 學士들이 모두 남과 좀 달라 보이려는 천성이 있어 高談峻論을 하기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는 말을 일삼는다. 이는 차라리 과장하지 모자라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중국에 수준 낮은 책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中國賢哲提唱中庸之道, 現在想起來實在也很有道理, 蓋在中國最缺少的大約就是這個, 一般文人學士差不多都有點異人之稟, 喜歡高談闊論, 講他自己所不知道的話, 寧過無不及, 此莠書之所以多也.)<sup>28)</sup>

周作人は 1933년 다른 한 편의 글에서 “理工學을 공부한 사람이 교육, 정치, 철학을 논하고 人文學을 공부한 사람이 군사를 논하고 군인이 도덕, 종교, 철학을 논하는”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중국의 오랜 八股文化의 연속이라 해석한 바 있다.<sup>29)</sup> 그는 당대의 중국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空言을 부풀려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나의 여부라며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우선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sup>30)</sup>

周作人は 이러한 자신의 원칙을 ‘진실의 숭상과 허망의 배격(愛眞實, 疾虛

28) 周作人, 〈俞理初의 諧語〉(1937), 《秉燭後談》, 34쪽.

29) 周作人, 〈顔氏學記〉(1933): 「學理工的談教育政治與哲學, 學文哲的談軍事, 軍人談道德宗教與哲學, 概時文也.」(《夜讀抄》, 25쪽)

30) 周作人, 〈責任〉(1935), 《苦竹雜記》, 202쪽.

妄)’이라는 말로 집약했는데, 이는 이성을 골간으로 하는 周作人の 후기 초록체 글쓰기 기획의 가장 근원적인 문화적 動因을 이룬다.

옛날에 孔子는 子路에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 가르쳤다. 나는 여태껏 이 말을 잊지 않고 새겨서 漢代 이후로 虛妄함을 질타했던 王充을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으로는 明代의 李贄, 清代의 俞正燮, 이렇게 이 천년 동안 세 사람을 얻었다. 虛妄함을 질타하는 저편에 있는 것이 眞實을 숭상하는 것이니 나도 이에 힘쓰고자 해서 무릇 글을 씬에 있어 반드시 내 자신이 확실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에 대해서만 감히 붓을 든다.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의 眞實하고 慎重한 태도도 역시 儒家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자신한다.(昔孔子誨子路,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鄙人向來服膺此訓. 以是於漢以後最佩服疾虛妄之王充, 其次則明李贄, 清俞正燮, 於二千年中得三人焉. 疾虛妄의 對面是愛眞實, 鄙人竊愿致力於此, 凡有所記述, 必須爲自己所深知確信者, 才敢著筆, 此立言誠慎的態度, 自信亦爲儒家所必有者也.)<sup>31)</sup>

周作人の 이러한 ‘愛眞實, 疾虛妄’의 이성 정신은 글쓰기의 차원에서는空言을 배격하고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절제하는 대신 책의 초록을 통한 글쓰기의 記錄性을 강조하는 새로운 담론 방식의 형태로 나타났다.<sup>32)</sup> 즉 글쓰기에 있어 초록을 통한 기록적 요소는 늘리면서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할 수 있는抒情이나 議論의 역할은 대폭 줄인 것이다. 원래 抄錄은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데 있어 그 사실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록적 표현 기법이다. 특히 청대에 考證과 事實을 중시하는 문인과 학자들의 筆記에서 산문 기록 방식의 하나로 중요하게 채용되었는데, 근대 이후 ‘문학’의 영역에서 거의 사라졌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周作人에 의해 자신의 문화적 입장인 ‘愛眞實, 疾虛妄’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이다.

周作人이 기록성이 강조된 이러한 초록체 글쓰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虛僞나 空言이 배격된 소위 ‘진실의 소리’가 담긴 문화적 공간이었다. 사

31) 周作人, 〈藥味集·序〉(1942), 《藥味集》, 1-2쪽

32) 周作人, 〈夜讀抄·後記〉: 「自己覺得文士早已歇業了, 現在如要分類, 找一個冠冕的名稱, 做佛可以稱作愛智者, 此只是說對於天地萬物尚有些興趣, 想要知道他的一點情形而已. 目下在想取而不想給, 此或者亦正合於聖人の戒之在得的一句話罷. 不佞自審日常行動與許多人一樣, 并不消極, 只是想信空言無補, 故小說話耳.」: 「我所說的話常常是關於一種書的.」(《夜讀抄》, 202쪽 참조)

실 서방문학과 달리 중국 문학에서는 '문학적 진실'이 虛構나 想象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 고전 산문의 경우 허구나 空言을 배격하고 실제로 있었던 事實의 유무로 글의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는 곧 글쓰기의 가치에 있어 작위적으로 조작된 '예술적 진실'보다 '존재하는 진실'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있는 事實을 제대로 기록하고 드러내 주는 것만으로도 문학적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중국문학의 독특한 문학적 인식이 담겨 있다.<sup>33)</sup> 周作人이 후기에 특히 민속학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글쓰기에서 고대와 현대에 걸친 수많은 野史, 筆記 등의 채록과 수집을 통해 자국 국민들의 삶과 일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데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서, 거창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에 삶의 진정성이 녹아있고, 따라서 이러한 작업에 당대 지식인의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로 周作人이 당대 지식인 담론의 내재적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지식인들의 교조적 태도와 이에 따른 글쓰기의 공리화 경향이다. 周作人은 중국 지식인 글쓰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병폐 중의 하나가 어떤 담론을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믿고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교조적 경향에 있다고 보았다. 周作人은 이를 마치 종교인들이나 道學者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과 윤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尊命文學'이라 부르고, 그 근원에 고대의 策論으로부터 이어져온 '교조적 광신(專制的狂信)'의 迷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sup>34)</sup>

周作人은 원래 아무런 공리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글을 쓰던 사람이 훗날 어떤 주의나 주장을 알게 되고 또 어떤 문이론에 맞추어 글을 쓰게 되면서 개성과 감성을 잃어버려 다시는 창작을 못하게 된 경우와 심지어 아동문학에까지 유교적 덕목이나 계급적 이념을 담을 것을 주장했던 당시 언론들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존명문학'의 교조적 미망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sup>35)</sup> 문제는

33) 산문의 기록문학적 성격에 관해서는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서울, 소명출판, 2001, 157-196쪽 참조.

34) 周作人, 〈尊命文學〉(1936), 《周作人集外文(下集 1926-1948)》, 海口, 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 1995, 455-456쪽.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경직성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확대되어 결국은 사회적 담론의 소통 과정에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周作人이 혁명문학의 교조성을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으로서, 혁명문학의 글쓰기 의식 속에 앞서 언급한 그러한 狂信的 迷妄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체적 차원에서 글쓰기의 교조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周作人이 취한 방법은 한 마디로 담론의 '學術化'를 통한 현실과의 '거리두기'였다. 周作人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쉽게 교조적으로 빠져드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하며 자신들이 그 발전하는 역사의 주인이라 믿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그것은 역사를 잘 모르는 이(淺學者)들의 낭만적인 꿈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周作人에게 있어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세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영원한 순간의 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과도적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현실에 빠져들어 지나치게 열중하거나 혹은 마치 자신이 진보의 중심인 듯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여 그 속에서 헤매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것이다.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서 냉정한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周作人은 자신의 이러한 인생관을 그가 존경하는 영국의 성 심리학자 헤브락 엘리스(Havelock Ellis)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과거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양자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과도적 시대에 놓여 있음을 안다. 어느 때이건 현재는 그저 하나의 점점으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다. (...) 어느 한 순간도 이 땅위에 새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지 않는 적은 없으며 어느 한 순간도 해가 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제일 좋은 것은 그저 그 희미한 아침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 조금씩 앞으로 뛰어갈 필요도 없고 다만 일찍이 그 아침 햇살을 위해 자신의 빛을 사그라뜨렸던 지는 해에 대해 감사함만을 잊지 않으면 된다.(世上總常有人很熱心的想攀住過去, 也常有人熱心的想攫取他們所想象的未來, 但是明智的人, 站在二者之間, 能同情於他們, 却知道我們是永

35) 周作人, 〈兒童故事·序〉(1934), 《苦茶隨筆》, 78쪽; 〈蛙的教訓〉(1935), 《苦茶隨筆》, 185-186쪽.

遠在於過渡時代。在無論何時，現在只是一交點，爲過去與未來相遇之處。(…) 沒有一刻無新的晨光在地上，也沒有一刻不見日沒。最好是閒靜地招呼那熹微的晨光，不必忙亂的奔向前去，也不要對於落日忘記感謝那曾爲晨光之後垂死的光明。)36)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나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 혹은 현실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동시대인들의 狂奔과 愚昧함을 포함—을 이성의 눈으로 觀照하는 것이다.37)

周作人の 책을 통한 현실과의 '거리두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현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되 그것을 자기의 직접적 언술이 아닌 책—특히 古書—에 대한 초록이란 방식을 통해 학술화(이성화)함으로써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거나 맹목적으로 어떤 주의나 주장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참여하고 무서운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가능하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의견 표현을 줄이고 대신 '讀書'라는 자기 조정의 과정 속에서 책으로부터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동서고금 역사상의 편린들과 민속학적 자료 등을 찾아내 초록하면서 부단히 이를 학술화하고 간접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역할을 주로 무엇을 초록하고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에 한정시키면서 자신의 현실과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 견해 등을 학술화의 내면 속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周作人の '閉門讀書'나 抄錄은 혹자가 이야기하듯 그렇게 단순히 현실에 대한 도파나 자기 主見없이 베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이란 매개를 통한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이성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으며, 동시에 역사와 현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세계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담론 방식을 찾으려는 지식인의 치열한 자기 도전이었다.

#### IV. '獨抒性靈'에서 '思想之美'로

36) 周作人, 〈藹理斯的話〉(1925), 《雨天的書》, 89-90쪽.

37) 周作人, 〈偉大的捕風〉(1929), 《看雲集》, 47-50쪽 참조.

## —자기 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문체의 모색

周作人の 이 시기 새로운 글쓰기 기획은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 서정소품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글쓰기 지향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극복, 모색이란 측면도 있다. 사실 周作人이 1920년대 중후반부터 明末의 公安派 산문을 모델로 小品散文論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긴 했지만 스스로 공안파 글쓰기의 모든 면을 비판 없이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글쓰기의 취향에서만 보자면 거침없는 정서와 개성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변화무쌍함을 추구하는 공안파의 글쓰기와 줄곧 절제된 감정으로 삶과 일상의 소박함을 담담하게 표현하기 좋아했던 周作人の 스타일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존재했다.<sup>38)</sup>

그럼에도 周作人이 공안파 산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창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명말 소위 정통을 자처하던 唐宋古文派에 대항해 '獨抒性靈, 不拘格套'을 주장하며 소품문 운동을 일으켰던 공안파의 의의를 부각하고 담론화함으로써 당시 문단에서 혁명문학 등의 거대 서사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적 소품문 운동을 기획하기 위해서였다.<sup>39)</sup>

특기할 것은 周作人이 이러한 공안파 소품과 현대 산문을 연결하기 위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글쓰기에 있어서의 '抒情的' 태도라는 점이다. 그는 문학사에 있어 공안파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그들이 "정통의 古文을 무시하고 抒情의 태도로 모든 글을 쓴 데 있다"며 비록 "훗날 비평가들이 이를 경솔하고 空疎하다고 비평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진실한 개성의 표현"으로서 이미 현대적 글쓰기 의식의 전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sup>40)</sup> 周作人の 이러한 서정성에 대한 강조는 기본적으로 정감을 문학의 본질적 요소로 여기는 서구적 순문학관에 영향받은 바 크다. 즉 공안파의 '獨抒性靈'과 반정통

38) 陳平原, 《中國現代學術之建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346쪽 참조.

39) 羅崗, 〈寫史偏多言外意——從周作人『中國新文學的原流』看中國現代文學觀念的建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6년 3기, 70-93쪽 참조.

40) 周作人, 〈雜拌兒談〉(1928): 「公安派的人能够無視古文的正統, 以抒情的態度作一切的文章, 雖然後代批評家貶斥它爲淺率空疎, 實際却是真實的個性的表現, 其價值在竟陵派之上. 以前的文人對於著作的態度, 可以說是二元的, 而他們則是一元的, 在這一點上與現代寫文章的人正是一致.」(《永日集》, 76쪽)

성을 순문학이 지향하는 서정 본질론과 반공리성과 결합시킴으로써 당시 중국 문단에서 혁명문학 등의 공리적 문학에 반대하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담론 방식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sup>41)</sup>

문학운동의 차원에서 周作人の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서정 소품 창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고 소품문 전문 잡지도 탄생했으며, 이는 훗날 소품문 운동으로 이어져 당시의 文學場 속에 리얼리즘 문학이나 혁명문학과는 전혀 다른 지향을 가진 '소품'이란 형식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 이러한 서정성을 매개로 한 周作人の 글쓰기 시도는 그리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서정적 표현에 의지하다보니 周作人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의 깊이를 표현하기 힘들었다. 서정 소품은 공리적 문학을 비판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이를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1920년대 후반 周作人の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모색은 바로 이 대목에서 출발한다. 즉 자신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서정 소품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담론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1932년 周作人이 발표한 《雜拌兒之二·序》는 바로 이러한 그의 고민이 점차 새로운 글쓰기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는 俞平伯의 산문에 대한 비평의 형식을 취한 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俞平伯의 이 책 속에 실린 글들은 대체로 여전히 '雜'스럽다. 어떤 글은 고중층한 것으로 그 글 맛의 우아함과 품위가 전편과 크게 변함이 없고 어떤 글들은 〈中年〉과 같은 글처럼 抒情과 說理를 겸한 것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인 美文(文士之文)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사상의 아름다움(思想之美)이 겸비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남녀간의 문제 혹은 자식의 문제를 그린 몇 편의 글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과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감성과 냉철한 지적 이성을 함께 조화시켜낸 인생관으로서 이를 志로 삼아 言志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 이것으로 道로 삼아서 載道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平伯那本集子里所收的文章大旨仍舊是'雜'的, 有些是考据的, 其文詞

41) 周作人の 明末小品論과 순문학관의 관계는 拙稿, 〈文學想像與現代散文話語的建立(1925-1935)〉, 116-119쪽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4年 1期) 참조.

氣味の雅致與前編無異，有些是抒情說理的，如〈中年〉等，這裏邊兼有思想之美，是一般文士之文所萬不能及的，此外有幾篇講兩性或親子問題的文章，這個傾向優爲顯著，這是以科學常識爲本，加上明淨感情與清澈的智理，調合成功的一種人生觀，以此爲志，言志固佳，以此爲道，載道亦復何碍。)42)

여기서 주목할 것은 周作人이 더 이상 순문학관의 일원적 서정론이나 言志와 載道の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說理)과 서정을 겸비한 지적인 글쓰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43) 周作人은 일반적인 美文(文士之文)이 따라 오지 못하는 이러한 글들이 갖는 매력을 이른바 '사상의 아름다움(思想之美)'이라 표현했다. 사상의 아름다움이란 위에서 말한 바처럼 냉철한 이성과 견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감성과의 조화 속에서 드러낸 사상의 예술적 顯現으로서, 周作人의 사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각별한 주목은 그의 글쓰기가 이미 단순한 서정의 단계를 넘어 사상적 글쓰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주작인의 이 시기 글쓰기에서 이러한 사상적인 면의 추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하나는 고대 사상가들 중 자신과 사상적 입장이 비슷하거나 혹은 상반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글에 대한 초록을 통해 자신의 사상적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시기 산문에서 顏之推, 顏習齋, 俞理初, 蔣子瀟, 戴東原, 章實齋 등 당시 주작인이 사상적으로 존경했던 인물들의 글들이 특히 많이 초록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서 그들의 행적과 사

42) 周作人, 〈雜拌兒之二·序〉(1932), 《苦雨齋序跋文》, 120-121쪽.

43) 원래 周作人은 중국문학사를 국가 혹은 집단의 사상을 표현하는 載道文學과 개인의性情을 표현하는 言志文學간의 순환으로 파악하면서 載道文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言志文學論을 주창했었다. 1932년에 출판한 《中國新文學的原流》는 周作人의 이러한 言志/載道論을 이론적 차원에서 집대성한 것으로서 당시 문단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로 '사상의 아름다움'을 지향으로 하는 새로운 글쓰기 가치의 추구는 周作人으로 하여금 점차 載道와 言志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이 글에 이어 1935년에 발표한 〈中國新文學大系散文一集·導言〉에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도 남의 감정을 따라한 것이면 載道이고 사상을 표현했다더라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면 言志("言他人之志卽是載道, 載自己的道亦是言志")라는 새로운 해석을 했는데, 이는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사실상 자신이 그동안 주장했던 순문학적 言志와 載道 담론을 발전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周作人, 〈導言〉, 《中國新文學大系散文一集》, 上海, 良友圖書印刷公司, 1935년; 〈自己能所做的〉(1937), 《秉燭後談》, 4-5쪽 참조)

상적 견해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사실은 자신의 사상을 피력한 것이었다.<sup>44)</sup>

다른 하나는 초록할 글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어떤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글보다는 주로 사상적 견해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구현한 글들을 선택함으로써 글쓰기에 있어 사상의 日常化, 審美化를 추구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선택의 태도를 “尺牘과 題跋을 읽는 시각으로 筆記를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이 훌륭해야 하는 것 외에 사상이 넓고 식견이 풍부해야 하며 깊이 있고 우아한 취향을 갖추어야 한다. 人情과 物理를 알아 인생과 자연에 대해서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벌레와 물고기 같은 미물과 민요나 민속의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도 삶과 죽음과 같은 큰일들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하는데, 또 이것을 마치 집에서 담소 나누듯이 표현해 낸 것이라면 대체로 괜찮지 않은가 한다. (要在文詞可觀之外再加上思想寬大, 見識明達, 趣味淵雅, 懂得人情物理, 對於人生與自然能巨細都談, 蟲魚之微小, 謠俗之瑣屑, 與生死大事同樣的看待, 却又當作家常話的說給大家聽, 庶乎其可以.)<sup>45)</sup>

즉 이는 사상을 표현하되 그것을 도학자들의 엄숙하고 교조적인 풍모나 운동가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아닌 일상생활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표출한 글들을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글들의 초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글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상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사실 周作人에게 있어 사상은 무슨 거대한 이론적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상적 삶 속의 人情과 物理를 구현한 것으로 현실의 평범한 인간들의 눈과 입장을 통해 판단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건전한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평범한 사람들의 人情과 物理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사상은 오히려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했다.<sup>46)</sup> 周作人의 후기 글쓰기에서 사상을 일상화한 방식으로

44) 이러한 경우의 예는 대단히 많다. 두 가지만 들어보면 〈蔣子瀟遊藝錄〉에서 蔣子瀟의 〈近人古文〉에 나오는 단락의 초록을 통해 ‘日用飲食人情物理’에서 ‘道’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나, 〈劉青園常談〉에서 劉青園의 《常談》에 나오는 단락의 초록을 통해 귀신보응에 관한 견해를 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周作人, 〈蔣子瀟遊藝錄〉(1935), 《苦竹雜記》, 125쪽; 〈劉青園常談〉(1935), 《苦竹雜記》, 35-37쪽)

45) 周作人, 〈談筆記〉(1937), 《秉燭談》, 130쪽.

표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사상을 저 높은 곳이 아닌 일상의 모습 속으로 내려와 소품문화함으로써 보통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의 잣대를 통해 사상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입장과 담론 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1930년대 周作人の 抄錄體 散文을 중심으로 문체와 작가의 문화적 입장, 그리고 사회적 컨텍스트의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후기 周作人の 文體 選擇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周作人は 1930년대의 새로운 사회,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책을 매개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담론 방식을 창조했다. 그것은 당시 지식인 담론이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所産임과 동시에 그 동안의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극복의 노력을 구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문단에서 周作人の 목소리는 상당히 외로웠다. 郁達夫와 廢名, 錢玄同을 비롯한 몇몇의 知人들이 그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었지만 좌우익이 격돌하고 일본의 침략을 목전에 두었던 그 내우외환의 역사 속에서 古書를 뒤적이고 베끼는 작업은 운명적으로 외로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뻣뻣한 引用文과 난삽한 文言文 속에서 감추어진 그의 문화적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쉽게 드러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가 이렇게 책을 자기 삶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옛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기로 한 것도 현실에 대한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소통 방식을 찾아 나간 것인데,<sup>47)</sup> 그렇다면 이러한 외로움은 하나의 근원적인 외로움이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근원적인 외로움이 그를 훗날 친일이라는 또 다른 역사의 아이러니 속으로 몰고 간 것은

46) 錢理群, 《讀周作人》,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1, 76-79쪽 참조.

47) 周作人は 《結緣豆》라는 글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을 삶의 참을 수 없는 고독 속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기 위한 것이라 형용하며 이를 세상과의 '結緣'하기라고 불렀다. (《瓜豆集》, 174-177쪽 참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본다.

周作人の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념과 광기와 전쟁이 충만했던 20세기 중국이란 공간 속에서 끝까지 개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현실의 비판자가 되려고 했던 한 자유주의 지식인의 슬픈 운명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자신의 자유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던 새로운 담론 방식의 시도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문학'과는 또 다른 특색의 문학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앓'의 표현을 삶의 진정성의 기초로 삼는, 그러면서 근대 이후 우리에게 익숙해진 사실과 허구, 그리고 서정과 서사, 기록의 영역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문학이다. 사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세계에 대한 독립적인 자아의 표현 방식 그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그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문학을 위해 문학을 한 사람은 아니었고, 바로 그러한 제도적인 '문학'의 차원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담론 구축의 노력이 오히려 '문학'이 갖는 폐쇄성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영역을 만들어 낸 것이다.

### 【參考文獻】

- 周作人, 《周作人自編文集》, 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2002.  
 周作人, 《中國新文學的源流》,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張菊香, 張鐵榮, 《周作人年譜(1885-1967)》,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0.  
 張菊香, 張鐵榮, 《周作人研究資料》,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6.  
 程光燁, 《周作人評說80年》,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9.  
 舒蕪, 《周作人的是非功過(增訂本)》,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0.  
 劉緒源, 《解讀周作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4.  
 陳平原, 《中國現代學術之建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止庵, 《苦雨齋識小》, 北京, 東方出版社, 2002.  
 黃開發, 《人在旅途—周作人的思想和文體》,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錢理群, 《周作人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1.  
 錢理群, 《周作人傳》,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0.  
 錢理群, 《精神的煉獄—中國現代文學從“五四”到抗戰的歷程》, 南寧, 廣西教育出

- 版社, 1996.
- 卜立德, 《一個中國人的文學觀 — 周作人的文藝思想》,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 錢理群, 《讀周作人》,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1.
- 張中行, 《負暄續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0.
- 汪輝, 《無地彷徨》, 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94.
- 劉葉秋, 《歷代筆記概述》, 北京, 北京出版社, 2003.
-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서울, 소명출판, 2001.
- 金美廷, 《周作人研究》,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金美廷, 〈中國現代散문을 통해 본 中國 現代 精神史의 한 측면〉, 《中國文學》第30輯, 韓國中國語文學會, 1998.
- 金美廷,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中國現代文學》제20집,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2000.
- 舒蕪, 〈周作人後期散文의 審美世界〉,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7년1期.
- 葛飛, 〈周作人與清孺筆記〉, 《魯迅研究月刊》, 2003년 11期.
- 羅崗, 〈寫史偏多言外意 — 從周作人『中國新文學的原流』看中國現代文學觀念的建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6年 3期.
- 拙稿, 《中國現代散文話語的建構》,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年12月.
- 拙稿, 〈文學想象與現代散文話語的建立(1925-1935)(上)〉,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4年 1期.

## 【中文提要】

本文以周作人的文抄體散文作為對象, 主要討論三十年代周作人文體選擇的動因以及其背後的書寫意識。三十年的周作人選擇一個特殊的文體, 叫作“文招體”。相比他早期赫赫有名的美文, 歷來人們對周作人後期的文抄體關注很少, 基本上認為文學上的退步。但實際上這個時期他的文體選擇是非常自覺的, 可以把它視為周作人對世界尋求新的話語方式的積極努力。

周作人選擇抄書體散文有兩個基本的動因, 一個是從當代知識分子話語空間的批判性認識出發, 想建立一個既不說空話也不說信仰的文體, 結

果他創造了以書爲媒介兼備記錄性和知識性的文體。另一個是從過去自己書寫的反思出發，想建立一個能夠超越抒情小品，進而更加有效地表現自我的文體，結果他創造了以常識爲基礎體現“思想之美”的文體，卽文抄體。

**【主題語】**

周作人，抄錄體，文抄，文體選擇，現代散文，後期散文